

HomePage  
www.photomuseum.or.kr  
E-Mail  
photo@photomuseum.or.kr

Tel. 02-418-1315 Fax. 02-418-1316  
Seoul 05545, Republic of Korea  
Hann Tower (19, 20th floor), 'Sungpa-gu',  
05545 서빙구동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9길 19, 20층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공예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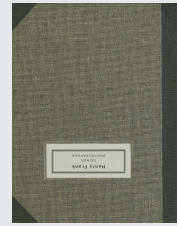
기간 2016.04.21 ~ 2016.06.30  
윤재민,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공공미술관,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10 The Essential  
Duana Michals



11 Morality of Tomorrow  
Sungsook 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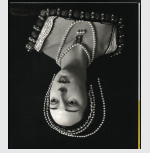
08 Life after Zog  
Hooch Sugimoto



09 Father Frank  
Robert Frank



12 Sunbird  
Jason Fulford



07 Sugimoto: Portraits  
Hooch Sugimoto

### 포토북 라운지 프로젝트 PHOTOBOOK LOUNGE PROJECT

'PHOTOBOOK LOUNGE PROJECT'는 한미사진미술관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순수사진전공의 협력 하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진집 전시 프로젝트이다. 1년에 4번 유동적으로 일정한 주제에 맞게 사진집을 선별하고, 개별 사진집들의 조사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한미사진미술관 내 리서치 센터에는 현재 2,000여 권이 넘는 국내 및 해외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집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관에서 소장한 사진집들 중 국내에 비교적 많이 소개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진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PHOTOBOOK LOUNGE PROJECT' is a newly launched exhibition project at 20th floor Lounge of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This project will be an exhibition of photography book collections of the museum in cooperation with Photography major, Master of Arts, Chung-Ang University. Four times a year, photography books will be selected under each main theme and the selected books will be presented to the guest as a result of research.

The research center of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has a large archive of over 2,000 Korean and foreign photography books and collects continuously various photography books. This project will introduce museums' photography books which are lesser-known and has not been introduced to Korean public.

네 번째 'PHOTOBOOK LOUNGE PROJECT'의 주제는 'Memory, 기억'이다. 모든 사진의 시제는 언제나 과거라는 점에서 사진의 사실주의는 현실의 증거로서 기억에 관계해왔다. 따라서 모든 사진가들이 기억에 대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진가들이 사진의 기억적 재현 능력을 표현의 도구로 사용해왔다.

사진가들이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그것이 존재했음"을 기억으로 상기시키는 방법이나 흐린 사진을 통해 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동체적 기억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작가도 있다. 또한 앙리 베르그송이 "기억-이미지"라고 부르는 기억의 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관객에게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기억적 환기를 통해 연상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진적 재현이 주관적 경험이 아닌 공동체적 과거 사실의 증거라는 문화적 코드에 관련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억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작가들의 사진집을 모았다. 개인적인 내밀한 기억을 다루는 사진집에서부터 공동체적 기억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가는 물론, 또한 직접적인 기억보다는 감상자의 차원에서 경험을 환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루는 사진집들을 선별했다.

The main theme of the fourth 'PHOTOBOOK LOUNGE PROJECT' is 'Memory'. Realism of the photographs has been related to memory as evidence of reality since the tense of all photographs are always past. Therefore, not all photographers' works about memory, but many of them used photography's ability to represent memory as a tool of expression.

Photographers deals in various ways with memory. They could recall a memory to prove "it existed" or some photographer uses blurry images to present the collective memory by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oblivion. There is also an approach using chains of memories called "souvenir-image" by Henri-Louis Bergson. This approach should engage the audience to associative participation by evocated memories and is not a one-sided approach. Because photographic reproduction is not a subjective experience but related to the cultural code of collective evidence of historical facts.

In this project, photo books of various photographers on the theme of memory were selected. These selected photo books covers not only collective memory, but also intimate personal memories and selected photo books also deals with images that can be metonymy experience for audience.

### 한미리서치센터

한미사진미술관은 2008년 한미리서치센터(사진집 자료실)를 개설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본 100여 권을 포함하여 현재 약 2,000여 권의 사진집을 소장하고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한미리서치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 자는 예약을 통해 소장 사진집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 학술계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으로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한미리서치센터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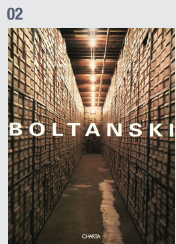
1. 열람대상
  - 1)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2) 한미리서치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자
2. 열람시간
 

주 1회 (수) 오후 2:00-6:00 \*사전에 전화 예약 (02-418-1315)
3. 열람규정
  - 1) 소장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열람 용도로 활용됩니다.
  - 2) 소장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이용자 개별 촬영과 복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3) 기증자의 요청 또는 자료실 자체 필요에 따라 기록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규칙
  - 1) 물품보관: 필기도구 이외의 소지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합니다.
  - 2) 신분확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 3) 검색열람: 검색대에서 소장 자료 검색 후, 자료실에서 찾아 자유롭게 열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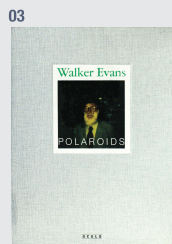


01 Red Roses Yellow Rain  
Marringje de Ma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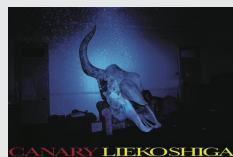
- 02 Christian Boltanski  
Christian Boltanski
- 03 Walker Evans:  
Polaroids  
Walker Evans



02 Boltans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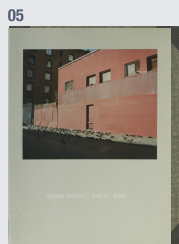


03 Walker Evans: Polaroids



04 Canary Lieko Shiga  
Lieko Shiga

- 05 Sunday Mornin' Comin' Down  
Hannah Modigh
- 06 Infinito  
David Jimen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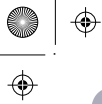
05 Sunday Mornin' Comin' Down



06 Infinito

# PHOTOBOOK LOUNGE PROJECT

## 04: MEMORY 기억



# 01

Red Roses Yellow Rain (2011)

Marrigje de Maar  
(1944-, The Netherlands)

Hatje Cantz, Germany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는 대학에서 먼저 사회, 인문학을 전공한 뒤 사진을 배웠다 한다. 그래서인지 Marrigje de Maar의 작품 『Red Roses, Yellow Rain』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동시에 너무나도 사회적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중국의 오래된 가정화를 찾아 다니며 촬영하였고, 사진 속에 등장하는 집들의 각기 다른 인테리어와 가구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를 짐작하게 해주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시 어제가 되어버릴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준다.

# 04

Canary Lieko Shiga (2007)

Lieko Shiga  
(1980-, Japan)

AKAACA, Japan

Lieko Shiga의 『Canary』는 전작인 『Lily』에서 그 기법과 방식을 이어오게 된다. 『Lily』는 작가의 유년시절 개인적인 기억에서 시작해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우울함, 혹은 어색하거나 모호한 감정들을 탐색해본 작품으로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순간의 떨림과 낯선 이와 만남에서 느껴지는 자각은 공기, 긴장감 등을 표현한 작품이며 이번엔 소개하는 『Canary』는 이와 같은 방식과 표현기법 등을 차용하여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서 만난 주민들의 감정과 무의식,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일련의 사진 작품이다.

# 07

Sugimoto: Portraits (2000)

Hiroshi Sugimoto  
(1948-, Japan)

Guggenheim Museum Publications, USA

1999년 독일 구겐하임 미술관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Hiroshi Sugimoto의 『Portraits』는 사진 매체가 갖는 기록과 기억의 진실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16세기 궁정화가 Hans Holbein을 비롯한 화가들의 초상화를 토대로 19세기에 제작된 런던 미담투스 박물관의 일일 조각들을 다시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을 보게 되는 관객들은 언뜻 중세 풍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초상사진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Hiroshi Sugimoto가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던지는 재미있는 질문이다.

# 10

The Essential (1997)

Duane Michals  
(1932-, USA)

Bullfinch, USA

시퀀스 사진의 창시자인 Duane Michals의 책 『The Essential Duane Michals』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Duane Michals의 시퀀스 사진 시리즈 전반을 담고 있다. 그의 사진 작품들을 보고 일노라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고정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대부분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억에서 벗어난 틀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객들은 Duane Michals가 만들어낸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꾸미게 되는 것이 아닐까?

# 02

Christian Boltanski (1997)

Christian Boltanski  
(1944-, France)

Edizioni Charta, Italy

프랑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Christian Boltanski의 작품집이다. 그의 작품들은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들에서 시작해 사회, 역사 등의 공적인 기억으로의 확장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사진과 설치를 통해 작품 세계를 풀어어나가는 Christian Boltanski의 작품집을 통해서 관객들은 개인의 역사(기억)와 단체, 공공의 역사(기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예술가가 본인의 작업과 삶을 대하는 교과서적인 태도 또한 엿볼 수 있다.

# 05

Sunday Mornin' Comin' Down (2012)

Hannah Modigh  
(1980-, Sweden)

Journal, Sweden

제목부터 낭만적인 Hannah Modigh의 작품 『Sunday Mornin' Comin' Down』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의 일상들을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되어있다. 특이하고 거창한 주제 의식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이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일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사진 본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가가 기억하고 있는 『Sunday Mornin' Comin' Down』에 담긴 사람들의 일상들을 들여다 보며, 그들의 여상스러운 나날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한다.

# 08

Life after Zog (2013)

Chiara Tocchi  
(1982-, Italy)

Schilt Publishing, The Netherlands

『Life after Zog』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작업으로 알바니아 동경들에 대해 개인적인 기억을 시작으로 사회적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유년시절에 자신의 고향인 남부 이탈리아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온 알바니아 유민들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기억들이 결국 훗날 작가가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진 작업으로 풀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작가는 『Life after Zog』를 통해 작가가 유년시절에 기억하고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의 모습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보려 하고 있다.

# 11

Morality of tommorow (2014)

Sungseok Ahn  
(1985-, Korea)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Korea

안성식 작가의 사진집 『내일의 도덕』은 시간의 흐름과 이에 기반한 역사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기억을 암시하고 있다. 두 연속 시리즈 (역사적 현재)와 (내일의 도덕)를 묶어 출판한 책 『내일의 도덕』은 역사적 기념물이 자리 잡은 공간, 혹은 공공장소와 빠르게 관련된 신도시 등에서 현재의 모습과 과거에 촬영된 사진을 비교프로젝트를 사용해 함께 보여줌으로써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흘러간 시간과 흘러갈 시간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를 관객들은 작가가 파헤쳐 드러내 놓은 이 시간들을 공유하며 각자의 기억들에 잠기게 된다.

# 03

Walker Evans: Polaroids (2002)

Walker Evans  
(1903-1975, USA)

Scalo, USA

1973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거장 Walker Evans는 당시 혁신적인 폴라로이드 카메라 SX-70과 필름을 폴라로이드사로부터 제공받게 되었고, Walker Evans는 그것으로 사진작업을 하였다. 『Walker Evans : Polaroids』에서는 작가가 촬영한 지극히 미국적인 풍경들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식 다큐멘터리 사진 스타일의 창시자인 Walker Evans의 잘 알려지지 않은 『Walker Evans : Polaroids』 작품들 속에서 어떠한 기억들이 남겨져 있을까?

# 06

Infinito (2000)

David Jimenez  
(1970-, Spain)

IG Fotoeditor S.L, Spain

스페인 출신의 사진작가 David Jimenez의 놀라운 작품 『Infinito』는 제목 그대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오직 사진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작가가 길거리에서 보고, 겪고, 느꼈던 사소한 흔적들을 촬영하고, 이를 감각적인 레이아웃으로 풀어냄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상을 하게 만든다. 전혀 관련 없는 한 장, 한 장의 인상과 기억들을 새롭게 엮어내는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사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말이다.

# 09

Henry Frank : Father Photographer 1890-1976 (2009)

Robert Frank  
(1924-, USA)

Steidl, Germany

Robert Frank의 아버지 Henry Frank는 생선 라디오와 녹음기 등을 팔거나 가구 디자인을 통해 가족을 부양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는 틈틈이 자신의 가족, 즉 다시 말해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 Robert Frank의 어린 시절 모습을 촬영해 왔었는데 사진집 『Henry Frank : Father photographer』는 유년 시절의 Robert Frank와 그의 가족들을 아버지 Henry Frank가 촬영한 47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위대한 사진작가 중 한 명인 Robert Frank의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이 책을 보면 무엇이 그를 사진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처음의 그 작은 씨앗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12

Sunbird (2000)

Jason Fulford  
(1973-, USA)

Bird Entertainment, USA

『Sunbird』는 미국의 사진작가 Jason Fulford 사진과 Adam Gilders의 글을 결합한 독립 출판 서적이다. 이 책의 주된 주, 소재는 북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순간인 슬픔과 기쁨, 아름다움과 비극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사진작가 Jason Fulford의 감각 있는 사진 작품들이 눈 여겨 볼만하다. 작가는 본인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날들을 감각적인 구성을 통해서 사진으로 담아내고, 이러한 평범한 순간과 나날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들 모두의 소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상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되짚어 보려 하고 있다.

